

2003년
2월 26일
수요일
제16판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盧대통령 외교무대 첫 데뷔

盧 “한미간 이견 대화로 해결”

파월 “北과 전쟁할 생각없다”

■파월 국무장관 “한미관계 이상 없어”

노 대통령은 파월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관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부자기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견은 대화를 통해 조율해 나가면 된다”며 50년 동맹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황이 변하면 미군 주둔도 변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안보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한반도 평화는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월 장관은 “한미관계에 기복이나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양국간 우정으로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한미간에 어떤 변화와 조정 이 있을 때 반드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하겠다”며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정세를 위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전쟁할 생각이 없으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인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과도하게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적극 설득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일 정상간 동질감 강조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에서 두 나라와 두 정상간 동질

감을 특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가 되기 전 고이즈미 총리가 잘되면 나도 잘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도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치인으로서) 서로 성장해 온 게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가 양국관계에 기여한 점을 설명하고 “한일간에는 하루평균 1만명의 관광객이 교류하고 있다”고 양국간 교류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도 “양국이 협력하면 이 지역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북일관

계가 풀리면 양국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에 관한 의견이 그 동안에는 실감나

지 않았는데 북한문제가 풀리면 다시 경제인들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며 “일본과 부산-평양-러시아를 이을 수 있게 된다면 양국관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남북이 아니라 동북아의 문제”라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관계정상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고립되지 말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일본으로선 납치문제, 핵문제, 과거사 등 모든 것을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주기자

韓·日 정상회담

盧 “정치 성장과정 비슷

고이즈미총리 잘되면

나도 잘된다고 생각했다”

毎日経済（韓国） 2003年2月26日（水）

盧大統領、外交舞台に初デビュー

盧 “韓米間の異見は対話で解決”

パウエル “北朝鮮と戦争する考えはない”

日韓首脳会談

盧 “政治成長過程が似ている。小泉総理がうまくゆけば私もうまくゆくと思った”

■日韓首脳間の同質感を強調

盧大統領は小泉総理との会談で両国と両首脳間の同質感を特に強調した。

盧大統領は“大統領選候補になる前、小泉総理がうまくゆけば私もうまくゆき、そうでなければ私もよくならないだろうと考えていた”とし、“政治家として互いの成長過程が似ているから”と語った。

小泉総理はワールドカップ日韓共同開催が両国関係に寄与したことを説明し、“日韓間では一日平均1万人の観光客が交流している”と両国間の交流拡大の重要性を強調した。

これに対し盧大統領は“両国が協力すればこの地域に大きな仕事をなし得る自信を得た”とし“日朝関係が解決すれば両国の交流がさらに活発になるだろう”と答えた。

盧大統領は特に“韓日間海底トンネルの建設についての意見がこれまでは実感がわかなかつたが、北朝鮮問題が解決すれば再び経済人らの間から出てくるとみられる”とし、“日本と釜山～ピョンヤン～ロシアが結ばれるようになれば両国関係にも大きな意味がある”と語った。

（以下翻訳省略）